

주요 내용

1.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

15~44세 임신 경험 여성 6명 중 1명꼴, 낙태 경험있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의 가족 동반자살 실태(자녀 살해 후 자살)

2) 한국의 담배 시장 및 흡연 실태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15~44세 임신 경험 여성 6명 중 1명꼴, 낙태 경험있다!

2019년 4월 15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즉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탄식의 신음이 터져 나왔다. 이 판결에 대해 교계에서 잇단 토론들이 열릴 정도로 낙태는 큰 이슈였다.

낙태를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극적으로는 임부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가 임신, 출산, 낙태에 개입,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낙태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한다. 생명권이란 태아를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명으로 인식하고 낙태는 한 인격을 희생시키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규정한다. 물론 낙태 반대 측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낙태 허용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신 10주(마지막 생리일 기준 10주)부터는 태아의 장기와 팔, 다리가 모두 형성되어 사람의 모습을 완성하기 때문이고 또 여성의 건강도 임신 10주 이전의 낙태가 그나마 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넘버즈 170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낙태에 대한 현실을 다루고자 한다. 낙태에 대한 논쟁에 앞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정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낙태에 대한 토론이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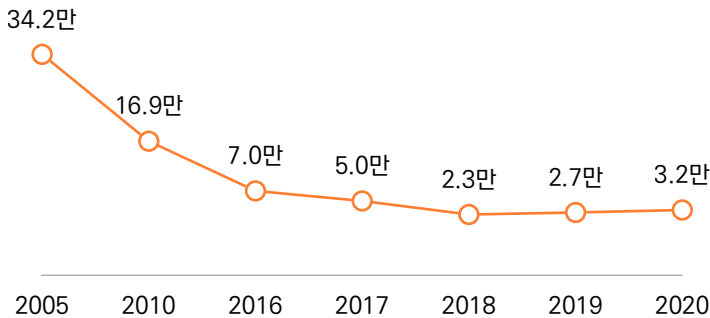


01

2020년 낙태(인공임신중절) 3만 2천 건, 15년 전 대비 9% 수준까지 낮아져!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3만 2천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15년 전인 2005년 34만 2천 건의 9% 수준까지 크게 낮아졌지만 2018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낙태 추정 건수 추이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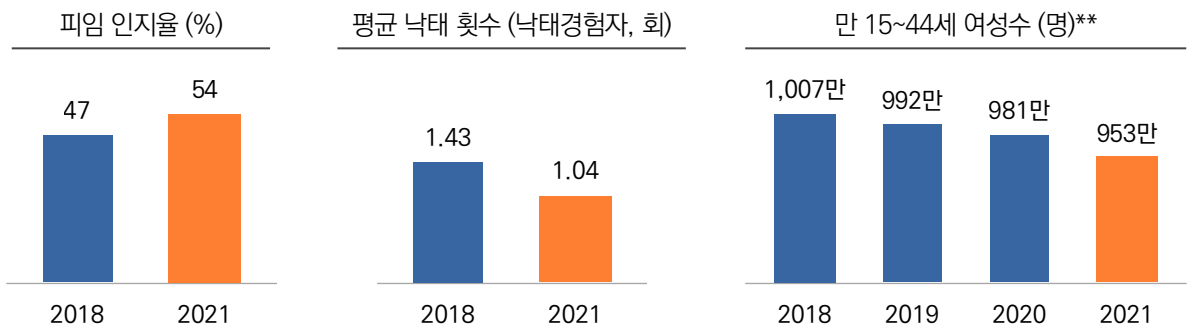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6.30. (만 15~49세 여성 8,500명, 온라인 조사, 2021.11.19.~12.06)

◎ 낙태 감소 원인, '높아진 피임 인지율'과 '낮아진 낙태 횟수' 꼽아!

- ▶ 낙태가 과거 대비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는 피임 인지율 증가와 낙태 경험자의 평균 중절 횟수 감소, 만15~44세 여성 인구의 감소 등을 꼽았다.
- ▶ 실제 2018년 같은 조사에서 47%로 응답했던 피임 인지율(피임에 대해 잘 아는 비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54%로 높아졌고, 1.43회(2018년)에 달했던 평균 낙태 횟수는 2021년 기준 1.04회로 나타났다. 또, 만 15~44세 가임기 여성 인구(인구총조사 기준)는 2018년 1,007만 명에서 작년에는 953만 명으로 5% 남짓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림] 낙태 감소 원인 (만 15~44세 여성 대상)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6.30. (만 15~49세 여성 8,500명, 온라인 조사, 2021.11.19.~12.06) /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2018년), 2019.02.14. (만15~44세 여성 10,000명, 온라인 조사, 2018.9.20~10.30)

**자료 출처 :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1503&conn_path=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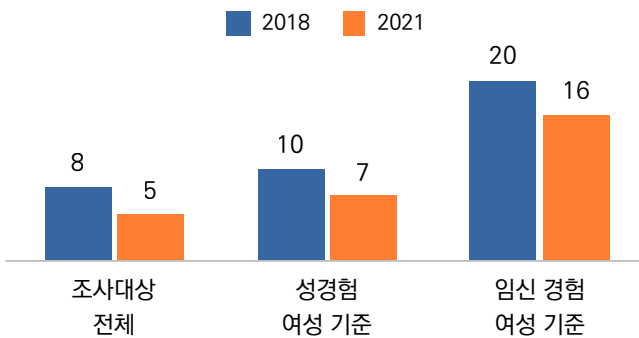
***2018년 조사와 비교를 위해 연령을 만 15~44세 기준으로 함

02

15~44세 임신 경험 여성 6명 중 1명꼴, 낙태 경험있다!

- ▶ 만 15~44세의 가임기 여성의 낙태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2021년은 5%로 100명 중 5명 수준이었다. 이는 이전 조사(2018년 8%) 대비 3%p 줄어든 수치다.
- ▶ 또,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7%,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16%, 즉 6명 중 1명꼴로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낙태를 선택한 여성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셈이다.

[그림] 낙태 경험률 (만 15~44세 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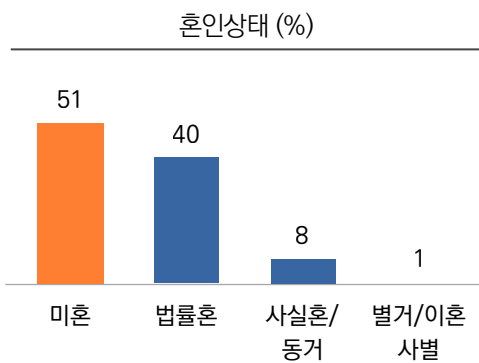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6.30. (만 15~49세 여성 8,500명, 온라인 조사, 2021.11.19.~12.06) /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2018년), 2019.02.14. (만15~44세 여성 10,000명, 온라인 조사, 2018.9.20~10.30)
 **2018년 조사와 비교를 위해 연령을 만 15~44세 기준으로 함

◎ 낙태 경험자, 절반(51%)은 미혼자!

- ▶ 낙태를 경험한 응답자들의 당시 혼인상태를 파악한 결과, '미혼'이 절반 이상(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률혼' 40%, '사실혼/동거' 8%, '별거/이혼/사별' 1% 순이었다.
- ▶ 낙태수술 당시 평균 연령은 2021년 조사 기준으로 만 28.5세로 조사됐다.

[그림] 낙태 당시 혼인상태/평균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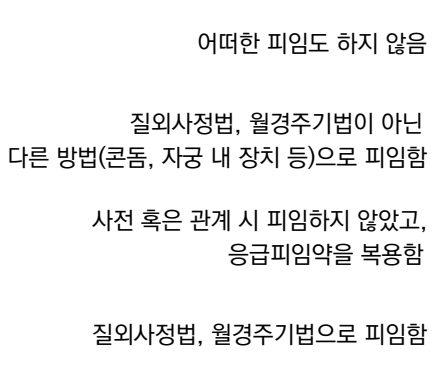
낙태 당시 평균 나이
만 28.5세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6.30. (만 15~49세 여성 8,500명, 온라인 조사, 2021.11.19.~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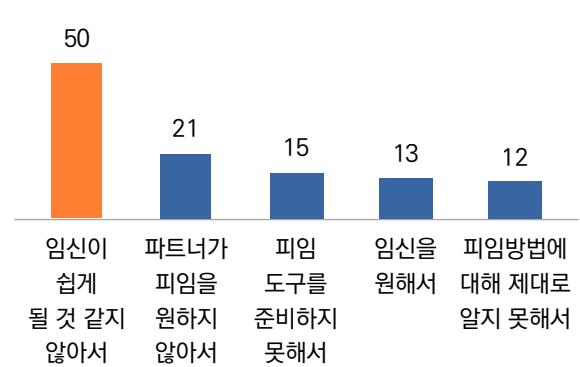
◎ 낙태 경험자 대부분이 피임 안하거나, 불완전한 피임으로 원치 않은 임신!

- ▶ 낙태 경험 여성에게 피임 여부를 물었을 때 ‘콘돔, 자궁 내 장치 등으로 피임’한 경우, 즉 비교적 확실한 피임을 선택한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대부분(89%)은 ‘사전, 관계 시, 사후 어떠한 피임도 하지 않거나’(46%), ‘질외사정법, 월경주기법으로 피임’(41%) 하는 등 불완전한 피임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 한편 피임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 여성 가운데 절반은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라서 답했고, ‘피임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12%를 포함하면 낙태 경험 여성 10명 중 6명 이상(62%)이 과거 당시 피임지식과 정보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임신을 원해서’ 피임을 하지 않은 응답은 13%에 그쳤다.

[그림] 당시 피임 실천 여부 (낙태 경험자, %)



[그림] 피임하지 않은 이유 (피임하지 않은 여성, 응급피임약 복용자 포함, 복수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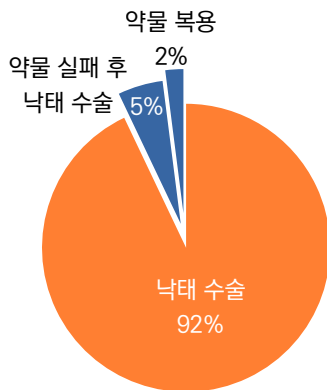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6.30. (만 15~49세 여성 8,500명, 온라인 조사, 2021.11.19.~12.06)

◎ 낙태 여성 대부분(92%), 약물보다는 수술 선택!

- ▶ 낙태는 크게 수술과 약물의 방법으로 행해지는데 현행 약사법상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낙태 의약품은 없어 약물 사용 낙태는 불법이라 볼 수 있다.**
- ▶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수술을 통한 낙태 비율이 92%로 압도적이었지만, 불법인 약물 사용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8%가량(최초 사용방법 기준) 있었다.

[그림] 낙태 방법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6.30. (만 15~49세 여성 8,500명, 온라인 조사, 2021.11.19.~12.06)

**자료 출처 : 메디컬월드뉴스, 인공임신중절 관련 FAQ, 2021.01.04. (<http://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39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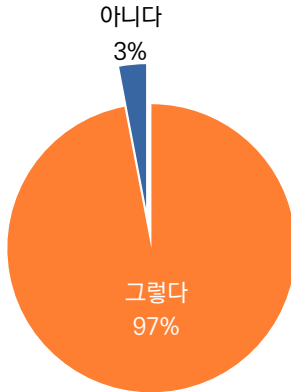
***약물만 사용한 경우와 약물 사용 후 수술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수치임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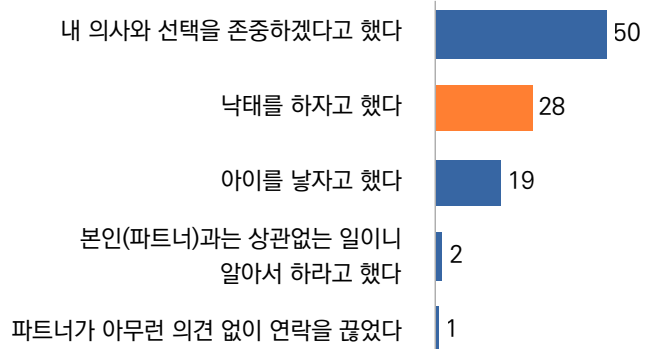
낙태 경험 여성, 파트너에게 임신 사실 알렸을 때 10명 중 3명(28%) '낙태 요구'!

- ▶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대다수(97%)는 임신 확인 후 임신 사실을 파트너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 ▶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보인 파트너의 반응은 '내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가 5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낙태를 하자고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로 10명 중 3명은 여성에게 '낙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임신 사실에 대해 파트너와 공유 여부 (낙태 경험자)



[그림]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파트너가 보인 반응 (파트너와 임신 사실 공유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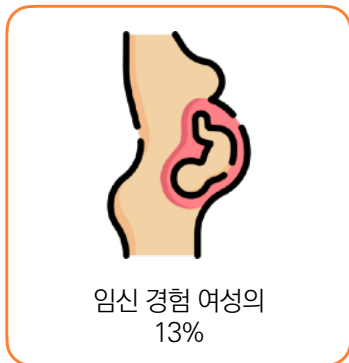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6.30. (만 15~49세 여성 8,500명, 온라인 조사, 2021.11.19.~12.06)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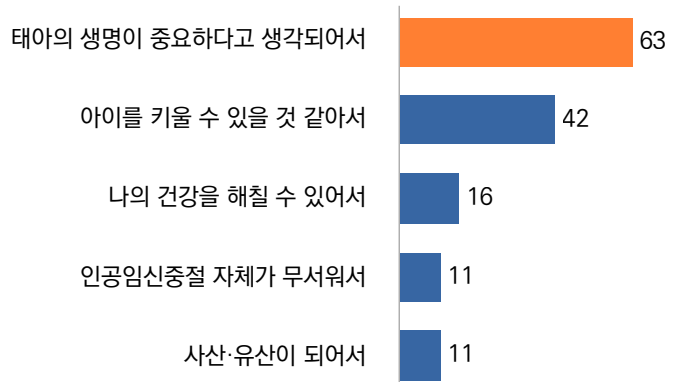
낙태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 안 한 이유,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 ▶ 임신 경험 여성 중 낙태를 고려했다(13%)가 최종적으로 낙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묻은 결과,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63%)를 가장 높게 꼽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42%,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서' 16% 등의 순이었다.

[그림] 임신 중 '낙태를 고려했다' 비율 (임신경험이 있으나 낙태한 적 없는 여성)



[그림] 낙태를 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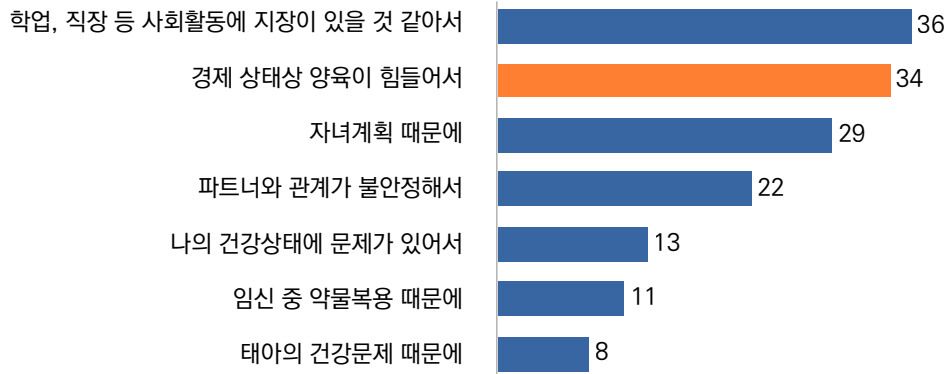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6.30. (만 15~49세 여성 8,500명, 온라인 조사, 2021.11.19.~12.06)

◎ 낙태 선택 이유, 사회경제적 요인(사회활동 제약/양육이 어려운 경제 상태) 압도적!

- ▶ 낙태를 선택한 이유를 물은 결과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6%)와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4%)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출산과 낙태를 결정하는데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낙태를 하게 된 이유 (복수응답,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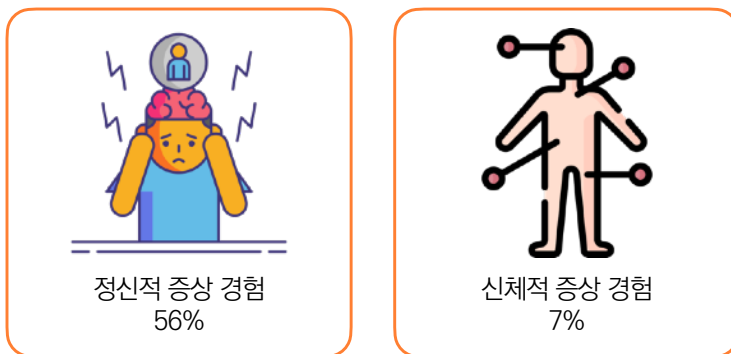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6.30. (만 15~49세 여성 8,500명, 온라인 조사, 2021.11.19.~12.06)

05

낙태 후 여성의 절반 이상(56%), 우울, 자살충동 등 정신적 증상 경험!

- ▶ 낙태 경험자의 경우 사후 여러 후유증 및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데 실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비율은 7%, 우울, 불안감, 자살충동 등 '정신적 증상' 경험률은 56%로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걸로 나타났다.**

[그림] 낙태 후 신체적·정신적 증상 경험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6.30. (만 15~49세 여성 8,500명, 온라인 조사, 2021.11.19.~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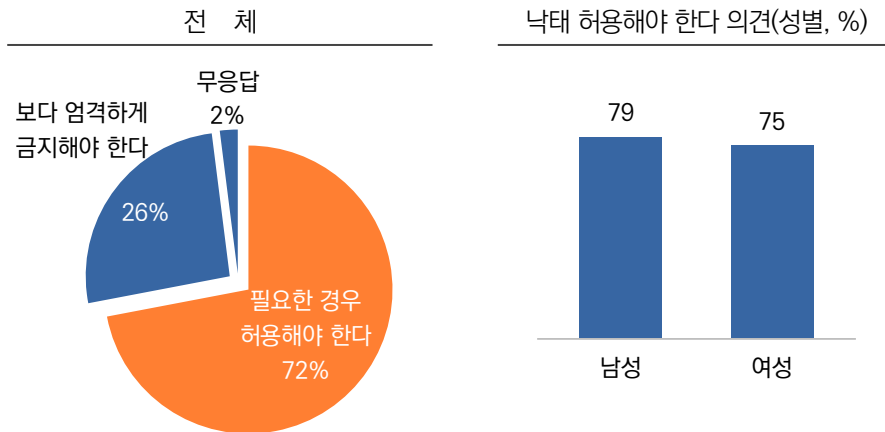
**신체적 증상: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산, 불임 등/ 정신적 증상: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자살충동 등

06

낙태에 대한 국민 인식, 찬성 72%!

- ▶ 한국갤럽의 낙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26%,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 72%로 낙태 반대보다는 허용의견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자료임에 유의)
- ▶ 이는 남성과 여성 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낙태에 대한 국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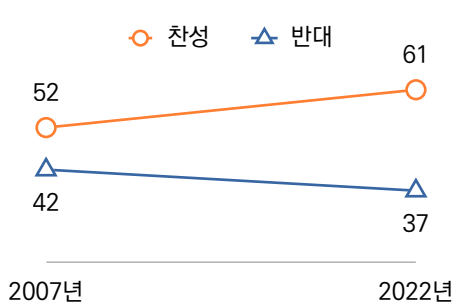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47호, 2019.03.29.(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3명, 전화조사, 2019.06.2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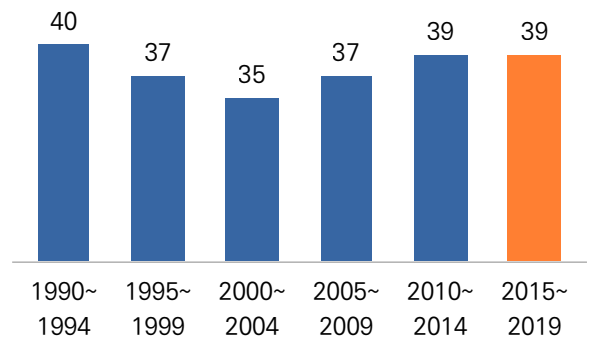
◎ 미국인, 낙태 찬성 61%

- ▶ 최근 미국 퓨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낙태 인식은 '찬성' 61%, '반대' 37%로 한국과 비슷하게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실제 세계적으로 낙태율(2015~2019)은 3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림] 미국인의 낙태 찬반 (자료 : 미국 퓨리서치센터, %)



[그림] 전세계 낙태율 (자료 : 갯마커연구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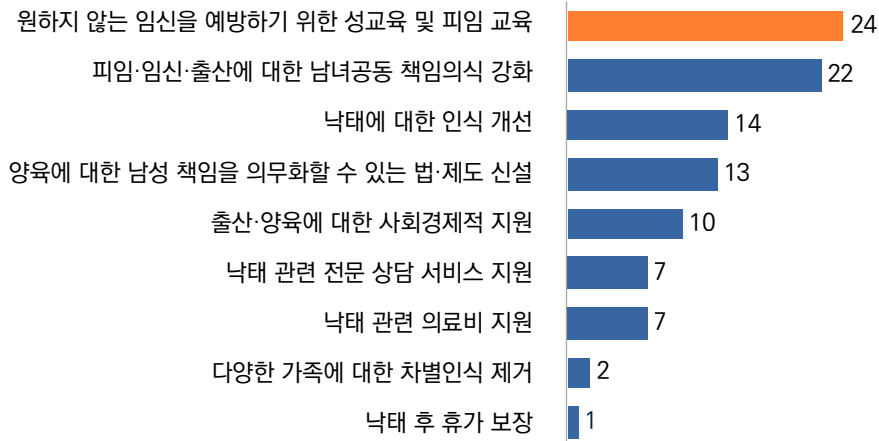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일보, "美 쏘건 '낙태 논쟁', 중간선거 흔드나... 여론은 '낙태 찬성' 61%(글로벌 포커스)", 2022.05.14.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514/113391611/1>)

07

낙태 문제 관련 국가가 해야 할 일,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 성교육/피임 교육’!

- ▶ 낙태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1순위), 여성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4%)과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2%)를 가장 많이 꼽았다.
- ▶ 단순히 성교육/피임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의식 개선 및 변화를 촉구하고, 더 나아가 법·제도의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림] 낙태 문제 관련 국가의 역할 (1순위, %)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6.30. (만 15~49세 여성 8,500명, 온라인 조사, 2021.11.19. ~12.06)

1.[한국의 가족 동반자살 실태(자녀 살해 후 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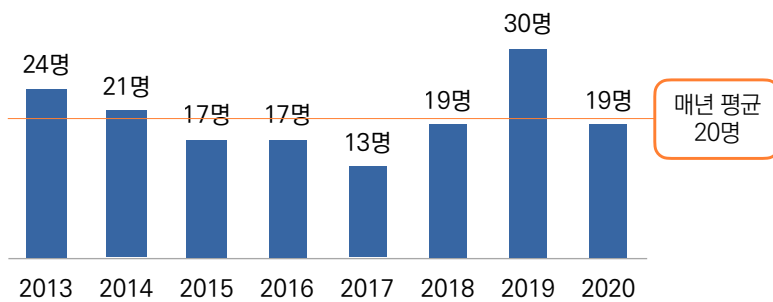
2.[한국의 담배 시장 및 흡연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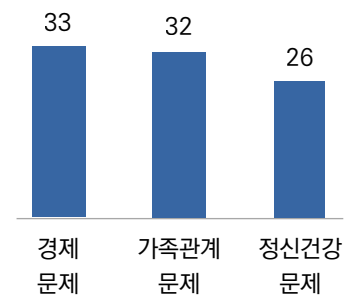
자녀 살해 후 자살하는 부모, 3명 중 1명이 '경제 문제'!

- ▶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해도 심심치 않게 동반자살 기사가 자주 등장했다. 동반자살로 미화하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한 경우이다.
- ▶ 최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에서 '2013~2020년 자녀 살해 후 자살 주요 현황' 자료를 발표했는데, 매년 평균 20명의 부모가 자녀를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 원인으로는 '경제 문제'(33%)와 '가족관계 문제'(3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신건강 문제'도 2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자녀 살해 후 자살자 수 추이 (2013~2020)



[그림] 자녀 살해 후 자살 주 원인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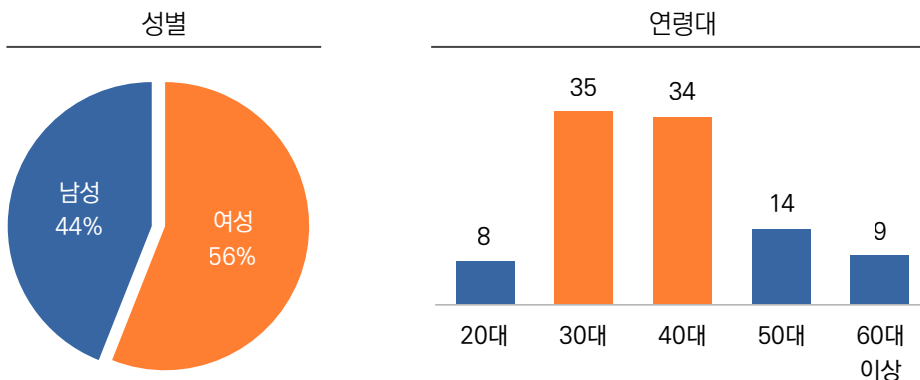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데일리메디팜, 국민의 힘 강기윤 "매년 평균 스무명의 부모가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기사 참조 (<http://m.dailymediph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011>)

◎ 자녀 살해 후 자살, 3040세대가 전체의 70%가량 차지!

- ▶ 자녀 살해의 경우 부모 성별 중 여성의 비율이 56%로 남성(44%)보다 높은 편이었고, 30~40대 비율이 70% 가량이나 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3040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부모임을 추측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자녀 살해 후 자살자 특성 (성별 및 연령대, 2013~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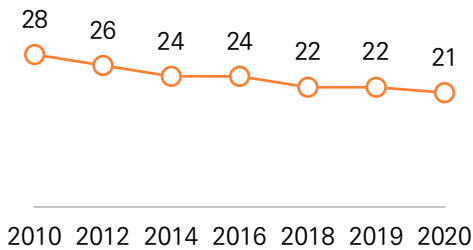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데일리메디팜, 국민의 힘 강기윤 "매년 평균 스무명의 부모가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기사 참조 (<http://m.dailymediph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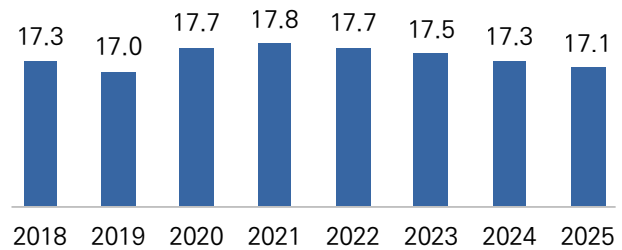
한국인의 흡연율, 지속적 하락 추세!

- ▶ 한국인의 흡연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한국 담배 시장의 규모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인의 흡연율(현재 기준)은 2010년 28%에서 2020년에는 10년 전과 비교해 1/4정도가 감소된 21%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흡연율'은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 ▶ 한국 담배 시장 규모(2018~2025 기준)는 17조 원대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이후 2020~2021년에 담배 시장이 다소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사회적 제약 때문으로 보인다. 즉 코로나19가 야기한 스트레스 증가가 담배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과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해외여행 감소 등으로 면세 담배 시장이 위축되면서 생긴 풍선효과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
- ▶ 한편 정부의 담배 산업 규제 강화 등으로 향후 한국 담배 시장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현재 흡연율 추이 (%)*



[그림] 한국 담배 시장 규모 및 전망 (조 원)**



*자료 출처 : 머니투데이, '코로나 스트레스 탓? 흡연율 감소에도 담배 더 피웠다' 기사 참조, 2021.08.2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2315221736355>)

참조) 원자료 출처: 유로모니터(정식 유통 채널 판매액 기준, 면세·군납·기업간 거래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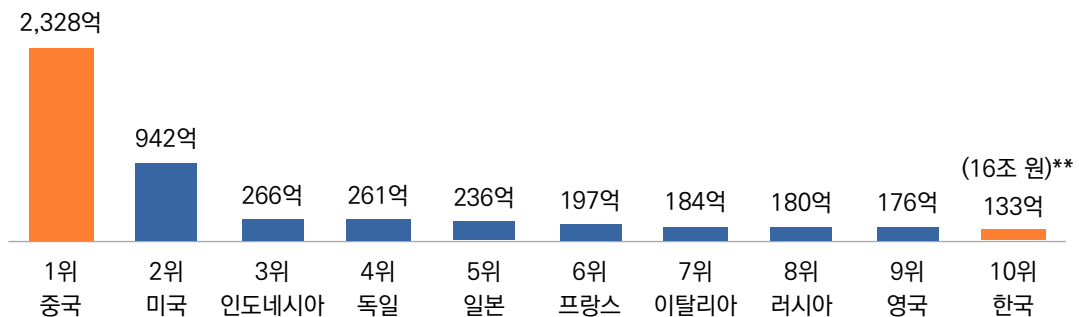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2020년 국민건강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01&conn_path=I2)

*현재흡연율 : 평생 일반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궐련)을 바우는 분율

◎ 한국 담배(궐련 기준) 시장, 여전히 세계에서 10번째로 크다!

- ▶ 한국인의 흡연율은 줄어들고, 한국 담배 판매율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의 담배 시장은 여전히 세계적 규모이다. 2020년 기준 '한국 담배 시장 규모'(일반 궐련 담배 기준)는 전세계 10위(16조 원)에 랭크됐다. 1위는 중국, 2위 미국이었고, 이어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등의 순이다.

[그림] 전세계 담배 시장 순위 (2020, 일반 궐련(연초)담배 기준, 상위 10위, 달러)



*자료 출처 : 머니투데이, '코로나 스트레스 탓? 흡연율 감소에도 담배 더 피웠다' 기사 참조, 2021.08.2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2315221736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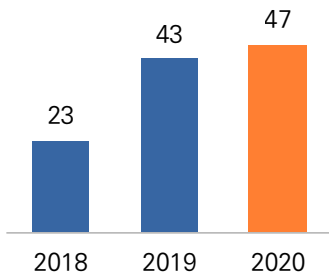
참조) 원자료 출처: 유로모니터(정식 유통 채널 판매액 기준, 면세·군납·기업간 거래 제외)

**2020년 원달러 환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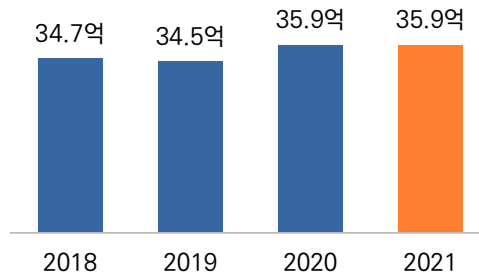
◎ 담배 판매량, 코로나19 이후 다소 증가!

- ▶ 질병관리청의 만성질환 건강통계에 따르면 흡연자 중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시도한 사람의 비율은 2020년 40%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 담배 전체 판매량은 35억 9천만 갑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하였고, 2021년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 이는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적지 않으나, 판매량은 줄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담배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림]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



[그림] 담배 전체 판매량 (갑)**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건강통계,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참조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pblcVis/details.do?ctgrSn=48>)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 담배종류와 상관없이 현재 흡연자 중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Note. 2019년 이전: 일반담배(꺾련) 흡연자를 대상으로 설문, 2020년 이후: 모든담배(일반담배, 꺾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를 대상으로 설문.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2021년 담배시장 동향 보도자료, 2022.01.2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22호\(2022년 12월 1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대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85호\(2022년 11월 5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 이유, 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노조파업에 대한 인식 등

◎ 사회 일반

["결혼 안 하고 애 낳을 수 있다" 2030대 39%...저출산 해결?](#)

중앙일보_2022.11.24.

[CNN "한국 260조원 투입했지만 세계 최저 저출산 해결에 불충분"](#)

연합뉴스_2022.12.05.

["은퇴자신감 높은 사람들, 노후소득 수단 평균 5개 이상"](#)

연합뉴스_2022.11.23.

[27살부터 '흑자', 43살에 정점... 61살부터는 '적자' 인생](#)

여성신문_2022.11.29.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남성 직장인의 생각은 달랐다](#)

여성신문_2022.11.27.

[남성인 당신, 우울한가요? 성 고정관념부터 내던져 봅시다](#)

한겨레_2022.11.24.

[키오스크 이용자 46.6%, 피해·불편경험 있다](#)

노컷뉴스_2022.11.25.

['3분 진료' 고질병인데...의사들이 답한 진찰시간은 "6분43초"](#)

중앙일보_2022.12.04.

[건설노동자 평균 연령 53세, 일당 18만원...노후준비 28% 뿐](#)

중앙일보_2022.11.21.

["바쁜 날이 없다"...문 닫는 서울 카페, 올해만 2천곳 넘길 듯](#)

한겨레_2022.11.23.

[2022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조사(한국직업윤리 연구원)]

[1\) 가족까지 제쳤다...20대 직장인 "삶에서 가장 중요" 꼽은 것](#)

중앙일보_2022.11.29.

[2\) 친구 일 쉴때, 출근한 나에 '현타'...코로나가 한국인 바꿨다](#)

중앙일보_2022.11.29.

[3\) "부모찬스·학연 있어야 성공" MZ이 최다...국민 86% "나는 을"](#)

중앙일보_2022.12.01.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기혼여성의 고용현황(통계청)]

[1\) 깊어진 고령화... 가족 돌봄 퇴사 기혼 여성 첫 증가](#)

국민일보_2022.11.23.

[2\) 미성년 자녀 둔 기혼여성 10명 중 6명 '워킹맘'](#)

노컷뉴스_2022.11.22.

[3\) 기혼여성 17%가 경력단절 ... 30대 최다](#)

매일경제_2022.11.22.

◎ 청소년 / MZ세대

[유서조차 안 남기고 죽은 영재 아들...1020 이런 죽음 급증, 왜](#)

중앙일보_2022.11.25.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냥 아픈 'K-청춘'](#)

노컷뉴스_2022.11.28.

['내겐 기댈 사람이 없어'... 홀로 세상 등진 자립준비청년들](#)

국민일보_2022.12.05.

◎ 경제 / 기업

[급한 대출 갖고 카드로 버텼다 ... 가계빚 1870조 사상 최대](#)

매일경제_2022.11.22.

[100대 기업 여성 임원 첫 400명 돌파](#)

조선일보_2022.11.24.

◎ 국제

[이기나 지나 경기장 청소 후 떠나는 日... 이젠 우주까지 치운다](#)

조선일보_2022.12.03.

[日的 '하와이 사랑' 꺾였다... 연말 여행가고 싶은 도시 1위](#)

조선일보_2022.11.27.

["젊을수록 못해" 일본 영어 수준 '80등'...한국은?](#)

한국경제_2022.11.28.

["연금도 못받고 죽다니"...독신남이 독신녀보다 훨씬 빨리죽는 이유\(일본\)](#)

매일경제_2022.11.19.

[WHO "세계인 90%, 코로나19에 일정수준 면역"](#)

조선비즈_2022.12.03.

["살해당한 세계여성 절반, 남편·가족 폭력에"...유엔 보고서](#)

한겨레_2022.11.24.

[美 '동성커플 가구' 100만 돌파...13년만에 100% 증가](#)

연합뉴스_2022.12.03.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독교 / 종교**

[하루 9시간27분 사역... 목사님 건강 주의보](#)

국민일보_2022.11.18.

[‘2030세대 탈 종교화 현상 심화’ 우려](#)

기독신문_2022.11.18.

[“턱없이 부족한 군종장교... 2배 이상 늘려야 제 기능”](#)

더미션(국민일보)_2022.11.28.

[美 목회자 탈진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 39% “사임 고려”](#)

크리스천투데이_2022.11.23.

[“미국, 예배 출석자 가장 많은 명절 성탄절 이브 예배”](#)

크리스찬타임스_2022.12.02.

[“기독교 인구 1.1% 일본, 신도와 불교 허구성...”](#)

크리스천투데이_2022.11.23.

[“세계 기독교 박해 심화 요인 중 하나, 서구의 ‘외면”](#)

크리스천투데이_2022.11.18.

◎ **이슈큐레이션**

[세상과 소통하는 즐거움...은퇴자도 ‘갈 곳’이 필요하다](#)

동아일보_2022.12.04.

◎ **칼럼**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방법\[직장인을 위한 김호의 생존의 방식\]](#)

동아일보_2022.11.23.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학교,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영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가우진,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운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홍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은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명민, 유형철,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상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립, 전치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도환,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오강일, 금교성, 나윤만, 노기환, 변형석, 서기원, 서영진, 서우정, 예하교회(김기환 목사), 원하나, 전근영, 최명호, 김인수, 김종천, 안요한, 이경선, 한동준, 김 찬, 남도현, 김동찬, 서은영, 김고은, 서경복, 윤홍경, 강정남, 이형근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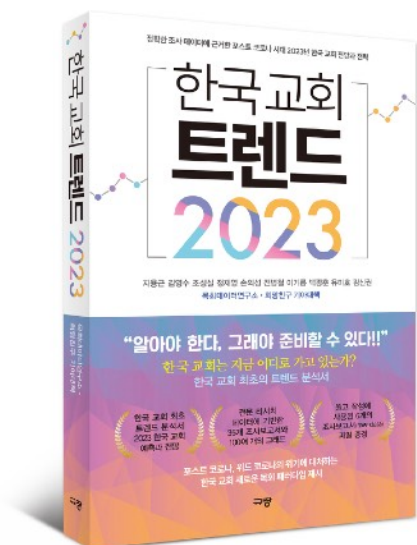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유명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연구소 소식.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간 |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예측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지난 9월 15일 국내 최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록으로 원고 작성을 위한 6개 조사보고서를 드립니다.)

보도 자료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